

FDI 유입이 중국 도시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리간용*

산둥교통학원 경제관리학원

유찬확**

산둥사범대학교 상학원

Received 17 January 2018; Revised 24 March 2018; Accepted 25 March 2018

요 약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공업화가 심화되면서 도시화는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도시화는 중국 경제발전의 현상으로서 내수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자국의 도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중국의 도시화는 가속단계에 진입하였다. 미래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투자의 증가를 만들어 내며, 도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3차 산업의 발전과 내수시장의 촉진제로서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및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금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앞선 외국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도시화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중국의 2000-2012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도시화의 상호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대부분 연구는 중국 전체 대상으로 연구가 아니면 개별 지역 대상으로 연구했다. 본 연구는 중국전체 3개의 지역(동부, 중부, 서부)으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이 점은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이다. 연구결과는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동부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도시 발전에 대해 효과가 중·서부지역 도시 발전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는 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 발달한 동부연해지역에서 집중하기 때문이다.

핵심주제어 :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도시화

* 李坎勇 山東交通學院 經濟与管理學院 講師 E-mail:303739868@qq.com

** 劉鈞擴 通訊作者(교신저자)山東師範大學 商學院 副教授 E-mail: lzk50888@hotmail.com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과 아태경상저널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 함

Research on the impact of FDI on China's Urbanization***

Kanyong Li

Shandong Jiaotong University

Zuankuo Liu

Shandong Normal University

Received 17 January 2018; Revised 24 March 2018; Accepted 25 March 2018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and industrialization, the China's urbanization development has gained enormous interest. Urbanization is an important phenomenon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Chinese government has greatly promoted the growth of urbanization through expanding domestic demands. Nowadays, China's urbanization undergoes a state with rapid developments. Sustainable urbanization can be readily achieved via increasing investment, improving the urban industrial structure, developing the tertiary industry and promoting the domestic market. However, when infrastructure and urban construction funds needed are insufficient, foreign companies with advanced technology and abundant capital can bring opportunities.

In this paper, the influe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urbanization was systematically studied by analyzing the panel data of 30 provinces during 2000–2012 in Chin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rought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China's urbanization, especially in eastern coastal areas. This is because most foreign direct investments are concentrated in the coastal areas of eastern China.

Key Words :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Urbanization

*** All papers comply with the ethical code se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and th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Commerce

1. 서론

중국의 국가발전정책은 1978년에 시작된 개혁·개방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이전의 균형적 발전정책에서 개혁·개방이후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거점성장이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는 급속하게 증대하였으나, 지역 간 성장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조합을 이루면서 가능하였으며, 특히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산업화, 개방화(무역 fdi), 시장화 그리고 도시화 등의 요인이 중국경제의 성장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¹⁾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공업화가 심화되면서 도시화는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도시화는 중국 경제발전의 현상으로서 내수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자국의 도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 5세대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2012년 12월 열린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화가 2013년 성장목표를 제시하고 6대 핵심 경제정책(6대 핵심 과제 : ① 정책 연속성, ② 내수 및 투자 확대, ③ 산업구조 전환, ④ 농촌인구의 도시민화, ⑤ 중점 영역의 개혁 추진, ⑥ 사회보장 및 민생 개선)의 방향을 확정되었다. 도시화가 그 6개 핵심 경제정책중의 하나이다. 리커청(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2012년 12월 세계은행 총재 접견 당시“중국의 향후 수십 년의 성장 잠재력은 도시화에 있다”고 언급했다.

21세기 중국의 도시화는 가속단계에 진입하였다. 미래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투자의 증가를 만들어 내며, 도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3차 산업의 발전과 내수시장의 촉진제로서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구조로 전환됨에 따라‘수출 주도형 경제’가 한계에 도달한 중국 정부가 내놓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여건의 악화는 지난 30여 년간 수출에 의존하여 고성장세를 지속한 중국에게 경제모델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었고, 중국은 도시화를 통해 ‘고용증대 → 소비개선 → 투자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개혁·개방 전 중국의 GDP는 381.23억 위안(1978년)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857.68억 위안으로 높아졌으며, 2010년에는 30,015.05억 위안으로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 등소

1) 김종섭(2012)

평의 “남순강화” 이후 개혁·개방의 가속화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간 미국 다음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국이 되었다. 특히, WTO 가입 후 2002년에는 550억 달러를 유치함으로써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 외국인직접투자유치국이 되었다. 2012년 실제 사용한 외국인투자유치 규모는 1,132.94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 도시인구 비율은 1950년 11.18%에서 1978년의 17.92%에 연 증가율이 0.23%에 불과하였으나, 1979년 18.96%에서 2012년의 52.57%를 상회하여 연 증가율이 0.96%로 개혁·개방 전보다 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화율은 일본(91.1%), 한국(83.2%), 미국(82.4%)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세계 평균(57.8%)에도 못 미쳐 향후 발전 잠재력은 크다 할 수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중국의 도시화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중국의 2000-2012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도시화의 상호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II 장은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III 장은 외국인직접투자 발전현황과 도시화 발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V 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자료 및 추정방법 등과 같은 실증분석 방법론을 기술한다. V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와 이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Williamson(1965)은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거대도시로의 집적은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거대도시로의 집적은 과밀에 따른 후생손실 및 지역 간 형평성 악화에 따른 비용 등을 창출한다.

Martin(1999)의 지적에서와 같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정책입안자들이 거대도시를 지원할 것인가 혹은 낙후된 다른 지역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어려운 문제점을 안게 된다.

Hare(1999)는 하남성 하읍현의 농촌 조사 자료를 근거로 노동력의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저축 유입과 자본 증가 그리고 이윤의 확대가 발생하므로 농촌노동력의 이동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농촌 노동력의 이동이 도농 간 수입격차의 축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

2) 중국 통계연감2013

다.

Martin and Justin(2001)은 농촌노동력의 유출에 따라 대규모 농촌 노동력의 물질적 자본과 인적자본도 같이 유출되며 농촌의 노동생산성과 소득 수준을 낮춘다고 보았다.

Bertinelli and Black(2004)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집적의 동태적 이익 구체적으로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이익과 정태적인 과밀의 비경제성을 비교해야 한다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론을 Williamson(1965)통해 가설과 유사한 형태의 도시화와 성장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도시화와 경제성장 혹은 거대도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몇몇의 실증분석 결과도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Henderson(2003), Brühlhart and Sbergami(2009)등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만 도시화 혹은 거대도시의 인구집중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하였다.

Henderson(2000)의 연구는 국가별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고 도시화 정도와 인당 GDP의 상관관계가 0.85로 나타났다.

康春鵬,齊志强(2013)의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도시화 간의 관계는 상호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도시화 정도 높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의 높고 교통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도시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영향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 따라 고용창출하고 경제발전하기 때문에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화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王新娜(2011)의 연구와 비슷하다.

彭繼增,鄧偉(2013)의 연구는 경제발전, 외국인직접투자와 도시화 상호 어떠한 관계를 찾기 위해서 중국 강서성의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열 연립방정식에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과 GDP가 강서성의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 공업화와 서비스의 급속하게 발전은 도시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도시화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도시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의 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黃娟(2011)의 연구는 2003-2007년 기간 동안 중국의 북경, 천진, 심양, 상해 등 21개 주요 도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도시화의 발전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고 개체 고정모형을 통해 도시화 발전 수준이 높은 도시의 (예를 들어 상해, 북경, 천진, 심진 등) 도시화가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도시화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나타나지만, 도시화 발전 수준이 낮은 도시의 (예를 들어 제남, 서안 등) 외국인직접투자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심지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石磊 (2010)의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동안 중국 장강삼각주 주요 도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이 3단계로 나누었다. 첫 단계는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 정책을 실시하여 기초 시설을 건설해서 실제로 도시화의 진전을 간접적 촉진하였다. 둘째 단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 사회, 고용 등의 파급효과 때문에 도시화의 진전을 직접적 촉진하였다. 셋째 단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 사회, 고용 등의 파급효과와 도시의 기반 시설의 건설이 다 완성되고 도시화의 발전의 관성의 작용을 계속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영수(2001)의 연구는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전국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의 도시경제 상태를 주요 산업 도시별 점유비율, 입지계수, 인구규모 변화추이, 도시경제안정지수, 특화계수, 엔트로피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산업구조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도시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 도시산업구조는 제조업의 종사자 비율은 감소하나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별로 제조업분야에서 전통적인 특화산업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한국의 도시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산업구조의 다양화는 도시경제의 성장이나 안정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吳点變(2007)의 연구는 입지 유형과 산업구조 변환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2·3차 고부가가치산업의 집중, 도농중심의 수송체계의 발달에 의하여 도시인구성장이 편중되어 성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상은(2010)의 연구는 중국의 성(省)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거대도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Williamson(1965)가설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거대도시의 인구집중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므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과밀에 따른 비경제성이 창출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王新娜(2011) 연구는 경제발전, 외국인직접투자와 도시화 상호 어떠한 관계를 찾기 위해서 중국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 동안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의 발전은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대부분 연구는 중국 전체 대상으로 연구가 아니면 개별 지역 대상으로 연구했다. 본 연구는 중국전체 3개의 지역(동부, 중부, 서부)으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이 점은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이다.

3. 도시화의 정의와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도시화 발전 현황

3.1. 도시화의 공간적 의미³⁾

공간적 측면에서의 도시화는 도시가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도시가 되어가는 과정은 도시에 관한 지리학적 정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리학에서 정의되는 도시화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하여 그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그 지역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되면 1차 산업 종사자수가 줄어들고 비 농업적 산업종사자수가 늘어나 도시적 산업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3.2. 도시화의 측정

도시화의 개념에 기초하여 도시화를 측정할 수가 있다. 도시화의 측정에는 대체로 다음의 4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첫째는 인구지표이다. 여기에서는 도시화율, 인구규모, 인구밀도 및 주야간의 인구비율 등을 사용한다. 도시화율은 국가의 전체인구수에 비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백분율로 나타낸다.

둘째는 토지이용지표이다. 여기에서는 농업용 토지가 비농업용 토지로 전용된 비율이나, 도시와 주변지역의 지가 또는 지대변화, 토지투기변화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주변지역에서는 비 농업적 토지용도비율이 높아지며, 지가의 상승현상과 일부지역에서 투기양상이 나타난다.

셋째는 농촌요소의 감퇴지표이다. 여기에는 농촌인구 비율의 감소와 농업인구의 겸업률의 증가 등을 사용한다. 대체로 농촌요소의 감퇴양상은 토지이용지표의 내역과 관련지어 취급한다.

넷째는 도시요소의 증대지표이다. 여기에서는 기존도시와 도시주변지역에 도시용도의 건물이 들어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비율과, 교통이 발달해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성이 증가하는 통근자율의 변화, 그리고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도시적 특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설명한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도시요소의 증대현상을 설명할 때는 도시수의 증가나 대도시권화의 내용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시화의 측정하는 방법은 첫째와 같이 인구지표를 사용하고 자 한다. 도시화율은 국가의 전체인구수에 비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백분율로 나타낸다.

3)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화 [urbanization, 都市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3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와 도시화 발전 현황

〈표 1〉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와 도시화 발전 현황

	외국인직접투 자금액(억달러)	총인구 (만명)	도시인구 (만명)	농촌인구 (만명)	도시인구/총 인구(%)	농촌인구/총 인구(%)
1978		96259	17245	79014	17.92	82.08
1979		97542	18495	79047	18.96	81.04
1980		98705	19140	79565	19.39	80.61
1981		100072	20171	79901	20.16	79.84
1982		101654	21480	80174	21.13	78.87
1983	9.2	103008	22274	80734	21.62	78.38
1984	14.2	104357	24017	80340	23.01	76.99
1985	19.56	105851	25094	80757	23.71	76.29
1986	22.44	107507	26366	81141	24.52	75.48
1987	23.14	109300	27674	81626	25.32	74.68
1988	31.94	111026	28661	82365	25.81	74.19
1989	33.92	112704	29540	83164	26.21	73.79
1990	34.87	114333	30195	84138	26.41	73.59
1991	43.66	115823	31203	84620	26.94	73.06
1992	110.08	117171	32175	84996	27.46	72.54
1993	275.15	118517	33173	85344	27.99	72.01
1994	337.67	119850	34169	85681	28.51	71.49
1995	375.21	121121	35174	85947	29.04	70.96
1996	417.26	122389	37304	85085	30.48	69.52
1997	452.57	123626	39449	84177	31.91	68.09
1998	454.63	124761	41608	83153	33.35	66.65
1999	403.19	125786	43748	82038	34.78	65.22
2000	407.15	126743	45906	80837	36.22	63.78
2001	468.78	127627	48064	79563	37.66	62.34
2002	527.43	128453	50212	78241	39.09	60.91
2003	535.05	129227	52376	76851	40.53	59.47
2004	606.3	129988	54283	75705	41.76	58.24
2005	603.25	130756	56212	74544	42.99	57.01
2006	630.21	131448	58288	73160	44.34	55.66
2007	747.68	132129	60633	71496	45.89	54.11
2008	923.95	132802	62403	70399	46.99	53.01
2009	900.33	133450	64512	68938	48.34	51.66
2010	1057.35	134091	66978	67113	49.95	50.05
2011	1160.11	134735	69079	65656	51.27	48.73
2012	1117.16	135404	71182	64222	52.57	47.43
2013	1175.86	136072	73111	62961	53.73	46.27

자료 : 中經网統計數據庫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79년부터 합법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개혁개방을 확대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1992년 이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연간 투자유치 규모는 110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대비 153%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 시에 투자유치가 잠시 위축되었지만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된 2001년 전년대비 15.1%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최초로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를 유치한 후 2012년에는 1117 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중국 도시화의 발전단계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1단계는 도시화 초보단계로서 1949 -1957년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제1차 5개년계획이 실시된 시기로서 새로운 공업과 광업 도시가 중국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도시화가 시작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당시에는 대다수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949년 당시 도시인구는 5,765만 명으로 총인구의 10.64%에 불과했다.

제2단계는 1958년에서 1960년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중국 정부의 공업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로 유입하면 5년까지로 도시화 변동이 비교적 큰 시기이다. 제2차 5개년계획이 진행되었고, 대약진 운동의 전개에서 1960년 도시인구는 총인구의 19.75%로 급성장한다. 하지만 1962년도부터 시작된 국민경제의 후퇴로 중국의 도시화는 오히려 후퇴하게 된다.

제3단계는 도시화 발전의 정체 단계로서 1966년부터 개혁개방 실시 전인 1978년까지로 볼 수 있다. 1966년부터 시작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도시가 더 이상 많은 노동력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는上山下乡(上山下乡)운동⁴⁾을 통해 도시의 청년들을 농촌에 거주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당시에는 군복무, 취업기회를 통해서만 도시 정착이 가능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1978년 중국의 도시인구 비중은 17.92%로 1960년보다 1.83% 하락하게 된다.

제4단계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1979년부터 1991년까지로, 개혁·개방 이후,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농촌지역의 가정단위 생산이 정착되면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대거 진입하게 된다. 특히 개혁개방 후 많은 경제개발구의 건립과 기업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1979년-1991년 도시인구 비율은 17.92%에서 26.94%로 급상승하게 된다.

제5단계는 1992년 이후부터 현재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도시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및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도시화율은 연평균 1.37%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2010년 49.95%의 도시화율을 기록한다.

4) 1960~1970년대 문화대혁명 기간 도시의 '지식 청년(知識青年)'을 농촌으로 이동시킨 정치운동, 당시 도시인구의 10%에 달하는 1,600 만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하향한다. 1970년대 후반,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다수의 '지식 청년'이 도시로 돌아온다.

심지어 2011년에는 중국 도시 인구가 51.27%로 농촌인구를 추월하여 2013년 말에는 53.73%에 달했다.

4. 실증분석

4.1. 가설의 설정

4.1.1 도시화와 경제발전의 관계

Williamson(1965)은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거대도시로의 집적은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거대도시로의 집적은 과밀에 따른 후생손실 및 지역 간 형평성 악화에 따른 비용 등을 창출한다.

정상은(2010)의 연구는 중국의 성(省)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거대도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Williamson(1965)가설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거대도시의 인구집중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므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과밀에 따른 비경제성이 창출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하였다.

王新娜(2011) 연구는 경제발전, 외국인직접투자와 도시화 상호 어떠한 관계를 찾기 위해서 중국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 동안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의 발전은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1: 도시화는 경제발전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4.1.2 도시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

康春鵬,齊志强(2013)의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도시화 간의 관계는 상호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도시화 정도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높고, 교통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도시화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영향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 따라 고용창출과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화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王新娜(2011)의 연구와 비슷하다. 그러나 彭繼增,鄧偉(2013)의 연구는 경제발전, 외국인직접투자와 도시화의 상호 관계를 찾기 위해서 중국 강서성의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간 데이터

를 사용하여 시계열 연립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화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가설 2: 도시화는 해외직접투자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4.1.3. 도시화와 국내투자의 관계

孫浦陽, 武力超(2010)의 연구는 Big Push Model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30개 성시의 1998-2008년까지 11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화의 정도와 국내투자가 정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가설 3: 도시화는 국내투자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4.1.4. 도시화와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의 관계

도시화와 농촌 인구 소득의 차이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동력이다.

Hare(1999)는 하남성 하읍현의 농촌 조사 자료를 근거로 노동력의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저축 유입과 자본 증가 그리고 이윤의 확대가 발생하므로 농촌노동력의 이동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농촌 노동력의 이동이 도농 간 수입격차의 축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Martin and Justin(2001)은 농촌노동력의 유출에 따라 대규모 농촌 노동력의 물질적 자본과 인적자본도 같이 유출되며 농촌의 노동생산성과 소득 수준을 낮춘다고 보았다.

가설 4: 도시화는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4.1.5.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관계

도시성장은 인구증가의 의미로 한정하고, 한나라의 도시화와 국가 경제발전, 도시산업구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체 하에 국가산업성장 및 도시산업구조화 도시입지 유형별 인구성장 간의 관련성 및 성장요인을 규명하였다.

吳点燮(2007)의 연구는 입지 유형과 산업구조 변환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2·3차 고부가가치산업의 집중, 도농중심의 수송체계의 발달에 의하여 도시인구성장이 편중되어 성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설 5: 도시화는 산업구조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4.2 분석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도시화와 상호 어떠한 관계를 찾기 위해서 중국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30개 성·시·자치국 지역별로 분석하고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孫浦陽, 武力超(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앞에서 살펴본 가설을 검정하기위해 Big Push Theory 모형을 설정하였다.

빅푸시이론(big-push theory)은 정태적인 후진국개발이론에서 한층 나아가 낙후된 경제를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는 개발기점 및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추구하는 이론으로서 로젠슈타인-로단(P.N. Rosenstein-Rodan)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에 의하면 저개발국의 전근대적 상태를 타파하려고 하는 시발국면에서는, 투자가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애를 극복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규모 및 속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①생산함수에 있어서의 비분할성 ②수요의 비분할성 ③저축공급의 비분할성 ④ 개발추진력의 심리적 비분할성이라는 네 개의 이론적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후 라이벤슈타인(H. Leibenstein)은 「경제적 후진성과 경제성장」(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1957)에서 로젠슈타인-로단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임계적 최소노력’(critical minimum effort)의 명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후진국의 특징을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곧 높은 자연인구증가율에 흡수되어 1인당 소득은 최초의 균형으로 되밀려 버리는 이른바 ‘발전 없는 확대’에서 구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고방식에서 경제발전의 문제는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크기의 충격에 의해 ‘발전 없는 확대’를 ‘발전을 수반하는 확대’로 전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라이벤슈타인은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성장에의 자극을 주는 임계적 최소한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og R_t = B_0 + B_1 \log(GDP_{it}) + B_2 \log(FDI_{it}) + B_3 \log(FAI_{it}) + B_4 \log(GAP_{it}) + B_5 \log(SECOND_{it}) + B_6 \log(THIRD_{it}) + \varepsilon_0$$

위 식에서 UR는 중국 각 성시 연도별 도시화율, GDP는 중국 각 성시 연도별 국내총생산 금액, SECOND는 중국 각 성시 연도별 제2차 산업 총 생산/국내총생산, THIRD는 중국 각 성시 연도별 제3차 산업 총 생산/국내총생산, FDI는 중국 각 성시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FAI는 중국 각 성시 연도별 국내고정투자 금액, GAP는 중국 각 성시연도별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 i는 각 성시, t는 당기의 연도를 나타내고 있다.

4.3 분석방법 및 변수 정의

〈표 2〉 변수의 정의 및 출처

	변수	정의	단위	기대 부호
종속변수	UR	중국 각 성시 연도별 도시화율	%	
	GDP	중국 각 성시 연도별 국내총생산 금액	억 위안	+
	FDI	중국 각 성시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만 위안	+
독립변수	FAI	중국 각 성시 연도별 국내고정투자 금액	억 위안	+
	GAP	중국 각 성시연도별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	위안	+
	SECOND	중국 각 성시 연도별 제2차 산업 총생산/국내총생산	%	+
	THIRD	중국 각 성시 연도별 제3차 산업 총생산/국내총생산	%	+

자료 : 中經网統計數據庫

4.4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기초통계 결과

	Variable	Mean	Median	Maximum	Minimum	Std.Dev.	Observations
전국	LOG(UR)	3.762	3.779	6.206	1.387	0.355	390
	LOG(FDI)	13.744	13.979	16.932	9.449	1.73	390
	LOG(GDP)	8.642	8.704	10.952	5.575	1.053	390
	LOG(FAI)	7.922	7.946	10.35	5.018	1.133	390
	LOG(SECOND)	3.839	3.884	4.119	2.986	0.189	390
	LOG(THIRD)	3.659	3.643	4.337	3.353	0.157	390
	LOG(GAP)	9.012	9.027	10.202	7.936	0.512	390
동부	LOG(UR)	3.956	3.974	6.206	2.965	0.376	143
	LOG(FDI)	15.162	15.256	16.932	12.762	0.989	143
	LOG(GDP)	9.172	9.289	10.952	6.267	1.013	143
	LOG(FAI)	8.321	8.437	10.35	5.293	1.102	143
	LOG(SECOND)	3.819	3.92	4.096	2.986	0.268	143
	LOG(THIRD)	3.748	3.694	4.337	3.45	0.199	143
	LOG(GAP)	9.176	9.236	10.202	8.017	0.544	143
중부	LOG(UR)	3.701	3.753	4.041	2.989	0.245	104
	LOG(FDI)	13.822	13.85	15.85	11.969	0.982	104
	LOG(GDP)	8.794	8.781	10.296	7.521	0.671	104
	LOG(FAI)	8.056	7.999	9.973	6.246	0.968	104
	LOG(SECOND)	3.887	3.891	4.119	3.555	0.124	104
	LOG(THIRD)	3.575	3.592	3.742	3.353	0.1	104
	LOG(GAP)	8.845	8.858	9.703	7.936	0.482	104
서부	LOG(UR)	3.625	3.628	4.378	3.117	0.248	143
	LOG(FDI)	12.269	12.292	15.638	9.449	1.518	143
	LOG(GDP)	8.001	8.033	10.081	5.575	0.984	143
	LOG(FAI)	7.424	7.389	9.743	5.018	1.096	143
	LOG(SECOND)	3.825	3.813	4.067	3.561	0.111	143
	LOG(THIRD)	3.63	3.63	3.888	3.472	0.082	143
	LOG(GAP)	8.97	8.947	9.775	8.043	0.452	143

주: 동부: 北京, 天津, 河北, 遼寧, 上海, 江蘇, 浙江, 福建, 山東, 廣東, 海南

중부: 山西, 黑龍江, 安徽, 江西, 河南, 湖南, 湖北, 吉林

서부: 甘肅, 青海, 寧夏, 新疆, 內蒙古, 陝西, 廣西, 雲南, 貴州, 四川, 重慶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변수 시계열자료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해 패널데이터의 단위근 검정을 분석하였다. <표 4>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패널 단위근에 대한 1차 차분 검정결과에서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아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결과

		LOGUR	LOGGDP	LOGFDI	LOGFAI	LOGGAP	LOG SECOND	LOG THIRD
검 정 통 계 결 과	Levin, Lin & Chut*	-5.55 (0.00)	3.48 (0.99)	-5.51 (0.00)	0.46 (0.67)	-6.87 (0.00)	-4.84 (0.00)	-1.83 (0.03)
	Im, Pesaran and Shin W-stat	-1.84 (0.03)	10.83 (1.00)	0.45 (0.67)	7.45 (1.00)	1.33 (0.90)	0.005 (0.50)	-0.45 (0.32)
	ADF-Fisher Chi-square	84.31 (0.02)	15.32 (1.00)	56.95 (0.58)	38.30 (0.98)	58.84 (0.51)	67.49 (0.23)	60.11 (0.47)
	PP-Fisher Chi-square	81.70 (0.03)	6.80 (1.00)	57.97 (0.55)	7.34 (1.00)	79.15 (0.04)	58.86 (0.51)	61.18 (0.43)
	HadriZ-stat	10.69 (0.00)	46.05 (0.00)	14.09 (0.00)	30.54 (0.00)	18.28 (0.00)	11.63 (0.00)	7.04 (0.00)
1 차 차 분 통 계 값	Levin, Lin & Chut*	-96.43 (0.00)	-11.29 (0.00)	-12.41 (0.00)	-6.48 (0.00)	-12.44 (0.00)	-11.42 (0.00)	-15.02 (0.00)
	Im, Pesaran and Shin W-stat	-25.99 (0.00)	-7.40 (0.00)	-9.95 (0.00)	-3.94 (0.00)	-9.47 (0.00)	-9.41 (0.00)	-11.62 (0.00)
	ADF-Fisher Chi-square	225.71 (0.00)	154.53 (0.00)	200.32 (0.00)	102.53 (0.00)	190.81 (0.00)	192.62 (0.00)	229.64 (0.00)
	PP-Fisher Chi-square	286.84 (0.00)	200.72 (0.00)	250.51 (0.00)	98.92 (0.00)	175.04 (0.00)	214.70 (0.00)	360.11 (0.00)
	HadriZ-stat	0.46 (0.32)	0.32 (0.46)	0.71 (0.23)	-0.19 (0.57)	-2.51 (0.99)	1.14 (0.12)	-0.50 (0.69)

주: 1. 각 변수의 관호 안 수치는 p값을 나타냄.

2. 모든 변수들이 LOG 수준변수를 의미함

3. Levin, Lin&Chu t*→Null: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Im, Pesaran and Shin W-stat; ADF-Fisher Chi-square; PP-Fisher Chi-square→ Null: Unit root (assumes individual unit root process). Hadri Z-stat→Null: No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각각의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 상관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피어슨 통계량은 <표 5> 와 같다. LOG(FDI), LOG(FAI), LOG(GDP)과 LOG(GAP)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피하기 위해기 모형(1), 모형(2),모형(3),모형(4)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표 5> correlations

	LOG(FDI)	LOG(FAI)	LOG(GDP)	LOG(GAP)	LOG(SECOND)
LOG(FAI)	0.754				
LOG(GDP)	0.828	0.958			
LOG(GAP)	0.506	0.748	0.643		
LOG(SECOND)	0.228	0.412	0.366	0.125	
log(THIRD)	0.207	-0.013	0.044	0.339	-0.569

<표 6> Pedroni 및 Kao 패널데이터의 공적분 검정결과

Pedroni Residual Cointegration Test	
Panel v-Statistic	-4.726(0.000)
Panel rho-Statistic	5.433(0.000)
Panel PP-Statistic	-14.801(0.000)
Panel ADF-Statistic	-5.147(0.017)
Group rho-Statistic	7.981(0.000)
Group PP-Statistic	-20.826(0.000)
Group ADF-Statistic	-4.795(0.000)
Kao Residual Cointegration Test	
ADF	-4.602(0.000)

주: 각 변수의 관호 안에 수치는 p-값을 나타냄.

변수 간의 장기적 안정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6>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여 허구적 회귀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준변수를 이용하여 대 중국직접투자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개체 간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과 동기 상관성을 고려하여 cross-section SUR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분리하여 전국의 상황은 연도의 길이보다 횡단면 개수가 더 많기 때

문에 cross-section SUR⁵⁾방법을 추정할 수 없어서 전국의 상황은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cross-section weights로 이용하고 자기상관을 고려하여 AR(1) 오차항을 전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 <표 8> <표 9> 와 <표 10> 같다.

5) 횡단면 외관상무관한회귀(Cross-section SUR: Cross-section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패널데이터를 이용할 때 개체 간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과 동기 상관성을 항상 존재하여 횡단면 외관상무관한회귀 방법은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과 동기 상관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횡단면 외관상무관한회귀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횡단면의 수가 연도의 개수가 적으면 추정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상황은 13년 동안 30개 성·시·자치국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cross-section weights로 이용하고 자기상관을 고려하여 AR(1) 오차항을 전제하고 분석하였다.

〈표 7〉 분석결과(전국)

Variable	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C	-2.552 (-5.244)	-5.102*** (-9.285)	-0.518 (-1.236)	-2.703*** (-5.866)	-0.062 (-0.129)	-3.521*** (-4.307)	1.049*** (-2.696)	-0.926* (-1.891)
LOG(GDP)	0.181*** (26.608)				0.190*** (26.892)			
LOG(FDI)		0.117*** (19.344)				0.071*** (8.659)		
LOG(FAI)			0.138*** (34.729)				0.138*** (932.444)	
LOG(GAP)				0.254*** (26.761)				0.266*** (24.251)
LOG(SECOND)	0.598*** (8.095)	0.832*** (11.060)	0.373*** (6.190)	0.538*** (7.349)	0.272*** (3.695)	0.807*** (6.367)	0.194*** (3.730)	0.320*** (4.161)
LOG(THIRD)	0.668*** (9.101)	1.106*** (11.979)	0.479*** (7.800)	0.573*** (7.954)	0.312*** (4.561)	0.883*** (7.753)	0.242*** (4.037)	0.290*** (3.978)
AR(1)					0.477*** (13.375)	0.510*** (13.278)	0.409*** (10.952)	0.457*** (12.310)
N	1170	1170	1170	1170	1170	1170	1170	1170
Adjusted-R ²	0.965	0.941	0.971	0.964	0.985	0.958	0.99	0.982
D-W	0.846	0.957	0.947	0.884	1.586	1.713	1.603	1.638

1.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2. 각 변수의 () 안 수치는 t-값을 나타냄.

모형(2)를 보면 중국 경제의 발전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이결과는 가설(1)을 지지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국의 GDP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90% 증가한다. 동부지역의 GDP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239% 증가한다. 중부지역의 GDP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41% 증가한다. 중부지역의 GDP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202% 증가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이 모형(3)과 같이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결과는 가설(2)를 지지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071% 증가한다. 동부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79% 증가한다. 중부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089% 증가한다. 서부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009% 증가한다. 동부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도시 발전의 효과가 중·서부지역 도시 발전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대 중국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에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표 8〉 분석결과(동부)

Variable	1	모형2	모형3	모형4
C	-5.969*** (-34.738)	-12.405*** (-36.632)	-5.156*** (-26.931)	-6.629*** (-79.267)
LOG(GDP)	0.239*** (41.246)			
LOG(FDI)		0.179*** (55.949)		
LOG(FAI)			0.183*** (77.416)	
LOG(GAP)				0.273*** (74.887)
LOG(SECOND)	0.954*** (44.114)	1.451*** (39.965)	0.808*** (35.422)	0.969*** (124.680)
LOG(THIRD)	1.089*** (36.886)	2.159*** (37.038)	1.200*** (41.129)	1.165*** (71.160)
N	429	429	429	429
Adjusted-R2	0.993	0.995	0.996	0.999
D-W	2.091	2.099	2.124	2.038

1.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2. 각 변수의 () 안 수치는 t-값을 나타냄.

중국 국내 투자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4)와 같이 중국 국내 투자가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결과는 가설(3)을 지지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내 투자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38% 증가한다. 동부지역의 국내 투자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83% 증가한다. 중부지역의 국내 투자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03% 증가한다. 서부지역의 국내 투자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41% 증가한다.

〈표 9〉 분석결과(중부)

Variable	1	모형2	모형3	모형4
C	-5.835*** (-8.639)	-8.074*** (-11.863)	-3.646*** (-5.346)	-5.273*** (-7.656)
LOG(GDP)	0.141*** (20.389)			
LOG(FDI)		0.089*** (15.570)		
LOG(FAI)			0.103*** (22.514)	
LOG(GAP)				0.191*** (18.586)
LOG(SECOND)	1.175*** (13.779)	1.394*** (15.443)	0.957*** (11.798)	1.066*** (12.482)
LOG(THIRD)	1.040*** (9.447)	1.432*** (12.520)	0.780*** (7.005)	0.878*** (7.664)
N	312	312	312	312
Adjusted-R2	0.983	0.957	0.986	0.984
D-W	1.769	1.917	1.733	1.737

1.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2. 각 변수의 () 안 수치는 t-값을 나타냄.

중국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이 모형(5)과 같이 중국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이결과는 가설(4)를 지지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국의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266% 증가한다. 동부지역의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273% 증가한다. 중부지역의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91% 증가한다. 서부지역의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289% 증가한다.

제2,3차 산업의 발전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그 결과는 가설(5)를 지지한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모형(3)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 따

라 제2,3산업에 대해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해서 다른 모형보다 도시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나타낸다. 지역에 따라 제2,3차 산업이 도시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동부지역은 경제가 발달하고 서비스산업(제3차 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2차 산업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부지역은 제2차 산업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3차 산업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표 10〉 분석결과(서부)

Variable		모형	모형	모형
C	1.364* (1.890)	-0.913 (-1.000)	1.289* (1.935)	-0.379 (-0.549)
LOG(GDP)	0.202*** (21.741)			
LOG(FDI)		0.009*** (9.640)		
LOG(FAI)			0.141*** (23.246)	
LOG(GAP)				0.289*** (21.714)
LOG(SECOND)	0.042 (0.342)	0.451*** (2.703)	0.137 (1.241)	0.179 (1.462)
LOG(THIRD)	0.128 (1.437)	0.453*** (3.894)	0.204** (2.502)	0.194** (2.116)
N	429	429	429	429
Adjusted-R2	0.991	0.984	0.986	0.989
D-W	1.795	1.974	1.766	1.99

1.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2. 각 변수의 () 안 수치는 t-값을 나타냄.

5.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발전, 외국인직접투자와 도시화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서 중국 30개 성·시·자치국 지역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경제의 발전은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동부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도시 발전에 대해 효과가 중·서부지역 도시 발전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대 중국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가 발달한 동부연해지역에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국내 투자는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내 투자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38% 증가한다. 동부지역의 국내 투자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83% 증가한다. 중부지역의 국내 투자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03% 증가한다. 서부지역의 국내 투자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41% 증가한다.

넷째, 중국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5)와 같이 중국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결과는 가설(5)을 지지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중국의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266% 증가한다. 동부지역의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273% 증가한다. 중부지역의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191% 증가한다. 서부지역의 도시와 농촌 인당 소득의 차이가 1% 증가하면 도시화율이 0.289% 증가한다.

다섯째, 제2,3차 산업의 발전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화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가설(5)을 지지한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모형(3)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 따라 제2,3산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해서 다른 모형보다 도시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제2, 3차 산업이 도시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동부지역은 경제가 발달하고 서비스산업(제3차 산업)발달하였기 때문에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2차 산업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부지역은 제2차 산업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3차 산업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도시화에 대해 제한적 요인이 되고 있는 호구제도의 폐지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그러나 호구제도는 도시화를 위한 시각을 넘어서서 도. 농간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시각에서 연구되어야한다.

인프라 및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금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앞선 외국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도시개발 시장은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한 중국 로컬기업의 사업 파트너 혹은 기술제휴기업 등의 자격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21세기 중국의 도시화는 가속단계에 진입했다. 미래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투자의 증가를 만들어내며, 도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3차 산업의 발전과 내수시장의 촉진제로서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개발지상주의적 사고가 중심이 되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급조된 도시들이 많기에, 개발·발전 위주의 사고 중심을 인간중심적, 문화예술적, 창조적, 생태적 발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는 도시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경제클러스터로 성장할 주요 도시군을 미리 파악하고, 유망 진출거점들에 대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종섭. (2012). Williamson 가설검정에 의한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국
제지역 연구, 16(3), 323-341.
- 맹경뢰. (2012).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과급효과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오점섭. (2008). 입지 유형과 산업구조 변환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성장.(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정상은. (2010).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역U자 가설 검증. 東北亞經濟研究, 22(1),
173-191.
- 정영수. (2001). 도시산업구조와 도시경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시립대학교.
- 최백렬. (2004).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8(1), 199-219.
- 최백렬. (2004). 해외투자론. 대전: 도서출판 대경.
- 黃娟. (2011). FDI 對我國城市化水平的影響研究——基于2003 ~ 2007 年21 个市數據.
經濟問題 第4 期, 44-47
- 康春鵬, 齊志强. (2013). 城市化、F D I 与經濟增長間關係的實証分析——以北京市爲
例. 技術經濟, 21(8), 40-52.
- 彭繼增, 鄧偉. (2013). FDI、城市化与經濟增長互動關係實証分析-以1984~2010年江西省時
間序列爲例. 金融与經濟, 30-33
- 孫浦陽, 武力超. (2010). 于大推動模型分析外商直接投資對城市化進程的影響. 經濟學家,
1003-5656 (2010) 11-0066-09, 66-74
- 王新娜. (2011). 外商直接投資影響下中國城市化發展研究. [D].東北財經大學
- Bertinelli, L, and D. Black. (2004). Urbanization and Growth.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56, 80-96
- Brühlhart, M. and F. Sbergami. (2009). Agglomeration and Growth: Cross-Country
Evidence.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65, 48-63.
- Hare, D. (1999). 'Push' versus 'pull' factors in migration outflows and returns:
Determinants of migration status and spell duration among China's rural

population.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5(3), 45-72.

Henderson, V. (2003).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economic growth: The so-what ques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8(1), 47-71.

Henderson, J. V. (2000). The effects of urban concentration on economic growth (No. w750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J.Ewardd Taylor, Philip L. (2001). Martin Human Capital: Migration and rural Population Change. *Handbook of Agricultural Economics*, 1, 457-511.

Williamson, J. G. (1965). Regional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a description of the patter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3(4, Part 2), 1-84.